

# 자 기 소 개 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 세상을 **향기롭게** 할 **인재들이** 자라는 **행복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선생님이 29년을 살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게다가 7년간 출퇴근길에 개누리고개를 넘어 다니며 매일같이 보던 상면초등학교, 상면초등학교에서 운영한 ‘가평 창의교실(생태체험교실)’의 지도교사로 참여했던 인연이 있던 바로 그 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지원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선생님이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며 웃고 울던 나날들, 부족한 나를 지지하고 보듬어준 동료들과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자산이다.

내 삶과 교단에서 겪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나를 소개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인재를 품은 행복학교>를 상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1. 내가 걷은 만큼만 보이는 세상 .....	2
2. 교사에서 두 번째 부모가 되다. ....	2
3. 소통과 교감의 또 다른 이름, 추억 .....	3
4. 기록을 경신하며 얻은 삶의 지혜 .....	4
5. 우연을 필연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	5
6. 공개수업 포비아, 수업명인 되다! .....	6
7. 최고의 학교? 교직원이 웃어주는 학교! .....	7
8. 학부모 아카데미가 불러온 나비효과 .....	8
9. 도전과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	8
10. 즐겁게 배우는 배움 천국(?) .....	9
11. 작지만 가장 큰 학교, 분교 .....	10
12. 상면 교육 가족을 꿈꾸며 .....	11

## 1 내가 걸은 만큼만 펼쳐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청춘이 어디 있으랴? 나의 청춘도 그러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위로는 당시 나에게 너무도 멀었다. 기대했던 대학 생활과 달리 군사교육도 받아야 했고, 고등학교의 연장선 같은 교육대학교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한 채 산다는 건 뭘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답답한 청춘이었다.

그러던 3학년 여름방학, 고교 동창들과 ‘자전거 전국 일주’를 계획했다. 부모님 허락을 받고, 막노동으로 부족하나마 자전거 여행의 최소 조건인 경비, 자전거, 텐트를 마련했다.

여행 중 펼쳐진 우리 땅의 풍경들은 내 청춘만큼이나 싱그러웠다. 처음 본 서해와 끝없이 펼쳐진 김제평야, 다도해 공원의 그림 같은 일몰, 한라산 영실코스를 지키던 고사목들의 이국적 풍경들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찬란하다.

여행 마지막 날 새벽에 오색약수터를 출발하는데 비가 내렸다. 한계령의 산바람에 비까지 맞으니 여름인데도 너무 추웠다. 정상까지는 가파른 오르막 9km, 3시간은 족히 올라가야 했는데 체력보다 체온이 문제였다. 한여름인데도 한겨울보다 더 추웠다. 오를수록 기온이 더 내려가 이러다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정신이 혼미해가던 순간 한계령휴게소가 보였다. 뜨끈한 어묵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세상이 다 환해졌다. 살았다.

몸을 녹인 후 밖으로 나오니 영동은 비가 오는데 영서의 하늘은 개어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세상은 내가 걸은 딱 그만큼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말했다.

“한계령을 무사히 넘었으니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한계는 없을 거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했다. 가장 뜨거운 여름에 얼어 죽을까 걱정했던 그 여름을. 인생은 뜻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 세상은 내가 노력한 딱 그만큼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 2 교사에서 두 번째 부모가 되다!

초임 때 가르친 김모 학생, 6학년인데도 받침 있는 글자를 못 읽고, 6년째 속셈학원을 다녔지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상황이라 6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교육보다 보육 차원에서 보살피고 지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 이제 곧 중학교에 가는데 영어를 하나도 몰라 걱정이라며 보충 지도를 부탁하셨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한테 영어를?**’ 순간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절절함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게는 턱없이 부족해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지만, 어머니한테는 세상 소중한 아이구나…….**’라는!

그래서 봄방학 때까지 매일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쳤다. 사과를 애플, 애플은 'A'라며 사과도 까서 먹여주고, 공은 볼, 첫글자 'B'를 제대로 쓰면 운동장에 나가 축구도 하며 놀이와 그림, 실물로 가르쳤다. 반복하고 칭찬하며 가르치니 아는 알파벳이 늘어갔다. **여럿이서 배울 때는 한참 뒤쳐진 부진아였지만, 제 속도대로 배우게 하니 칭찬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알파벳을 구별할 때마다 행복해하던 그 얼굴을 지금도 선하다. 비록 절반도 깨치지 못하고 졸업을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교감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이렇듯 저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른데 학령이 같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속도를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배우는 즐거움을 거세한 학습폭력이 아닐까? 세상이 줄 세우기 경쟁으로 우리를 부추겨도, 적어도 학교만큼은 개개인의 속도 차를 존중하며 더딘 친구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더 필요하듯, 이들에게 교사의 보살핌이 더 절실함을 알기에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이고, 두 번째 부모는 교사다'**를 되새기며 부모처럼 사랑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느린 아이, 부족한 아이, 외롭고 힘든 아이들에게 다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지지해 주었다. 교사가 보기에 넘치건 부족하건, 모든 부모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신규교사 시절, 나를 교사로 올곳이 서게 한 값진 경험을 했다.

### **3 소통과 교감의 또 다른 이름, 추억**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토요일 오후에 선생님 댁에 쳐들어갔다. 엄했던 분인데 반갑게 맞아주시며 라면을 맛있게 끓여 주셨다. 교실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나누다 진로를 고민하니 “지금처럼만 하면 원하는 교육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다.”며 격려하셨다.

**선생님 댁에 가봤다는 우쭐함(?)과 친밀한 교감 뒤의 뿌듯함, 그리고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고픈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날 선생님 댁에서의 한나절 교감이 교실서의 1년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음을 안 것이 내 교직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무사히 교육대학에 들어갔고 선생님이 되었다. 교실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로 아이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주고픈 욕심에 **매년 여름방학이면 반 전체를 데리고 춘천 중도에서 2박 3일 야영을 했다.** 함께 축구하고, 수영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동안 밀린 얘기들을 다 나누었다. 몇 년째 계속하다 보니 졸업생도 참여해 꽤 큰 행사가 되었다. 지금도 매년 찾아오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만날 때마다 의례 그때의 즐거움을 소환한다. 모두에게 나름 소중한 추억이었나보다.

**1년에 두세 차례 서울 나들이도 다녀왔다.** 토요일 오후, 대중교통으로 교보문고에 가 책도 한 권씩 사고, 경복궁과 인사동 구경도 했다. 학교를 떠나 어딘가를 다녀올 때마다 아이들과 나의 거리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열정만 넘쳤지 세심함이 부족했던 터라 걱정이

크셨을 텐데도 “그 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격려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지금도 감사하다.

**결혼한 후로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5~6명씩을 데리고 영화관도 가고, 밥도 해 먹고, 동네 산책을 하며 놀다가 밤이면 진실게임으로 마음속 비밀들을 공유했다. 경춘선 전철 개통 덕에 18명 모두를 한 번에 초대하면서 “퇴근 후에 저녁을 준비하는 선생님 아내를 위해 장기자랑쯤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농담 삼아 던진 말이였다.

저녁을 먹고 한참을 재미있게 놀고 나서 다들 내복과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나와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자기들끼리 준비한 장기자랑을 보여줬다. 리코더 합주, 개그 콩트, 걸그룹 댄스, 합창, 학예회 때 했던 연극 등 10개 남짓한 공연이 1시간 넘게 펼쳐졌는데 내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난다. **내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지하게 걸그룹 춤을 추던 그 아이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늘 그렇듯 아이들은 조금 베풀면 열 배 백 배로 보답한다. 내가 선생님이 된 건 태어나 가장 잘한 선택이다.**

종종 생각한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현재를 즐기며, 그날 보여줬던 무대의 공연처럼 멋진 삶을 가꾸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 4 기록을 경신하며 얻은 삶의 지혜

운동장에서 고학년들이 ‘8자 마라톤줄넘기’를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 2분 동안 긴 줄을 돌리면 아이들이 차례로 뛰어 들어가 줄을 넘고 나온 기록을 재는 경기이다.

그 모습이 멋져 보였는지 자기들도 해보겠다며 조르기에 아침에 잠깐씩 가르쳐주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기에** 긴 줄이 무서워 못 들어가는 아이가 절반, 어렵게 들어갔어도 걸리기 일쑤라 **처음에는 성공하는 아이가 고작 서너 명뿐이었다.**

잘하는 아이들이 시범을 보이며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알려 주고, 줄을 아주 천천히 돌려주니 성공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갔다. 한 달쯤 하니 운동신경이 없는 아이도, 겁이 많은 아이도 곧잘 넘었다. 이참에 아침 운동과 체육활동 전 준비운동을 줄넘기로 대체, 체력 증진과 줄에 대한 감각을 함께 키워주었다. 자신감이 생기자 **어느새 긴줄넘기는 쉬는 시간에도 모여서 하는 우리 반 놀이가 되었다.** 4학년을 마칠 때쯤 200 번을 넘었는데, 그 정도면 그 해 ○○군대회 1등 기록과 비슷하였다.

다음 해 그 아이들을 연임하게 되었다. 긴줄넘기 대회는 1팀을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반 전체가 15명이라 다 함께 도전해 보기로 목표를 세웠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포기하거나 다치면 출전이 무산되는 상황이라 서로를 챙겨주며 푹푹 뭉쳤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니 270번을 넘는 수준이 되었고, 우리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

마의 장벽인 300번에 도전하면서 줄 돌리는 속도에 맞춰 뛰는 기술과 들어가는 아이들 순서를 다시 정했다. 줄이 엄청 빠르다 보니 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들어가야 했다. 맨 앞에 서야 잘하는 아이, 중간에 있어야 안심하는 아이 등등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해 순서를 여러 번 바꿔가며 연습한 결과 최선의 전략을 찾아냈다.

304번이라는 ○○군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300번을 넘을 때는 정말 짜릿했다. 320번을 도전과제로 정하고 맹연습에 돌입했다. 줄에 맞아 시퍼런 멍이 들고, 걸핏하면 다리에 쥐가 났지만 땀 냄새를 달고 살면서도 아이들은 그 어느 때 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320번에 성공했을 땐 다 같이 얼싸안고 덩실 춤을 추었다.

도대회에서 314번을 넘었지만 아쉽게도 4등이 되어 트로피를 놓쳤다. 하지만 우리처럼 학급 전체 아이들로 구성된 팀은 우리가 유일했기에 진정한 우승팀이라며 다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 해 우리는 1년 동안 줄만 넘은 게 아니라, 원팀이 되어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넘는 지혜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 5 우연을 필연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과학적인 정확함보다 인문학적인 낭만과 설렘을 더 좋아해 수업도 국어, 사회, 도덕 교과를 더 열심히 준비해 가르치는 교사였다. 대학원에서도 통일교육과 영어 교육을 각각 전공하였다.

그런 30대 중반의 나에게, 교육청에 파견근무 나간 선배가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예산 지원도 되니 학생 과학동아리 운영을 권유했다. 자신은 없었지만 전화해준 선배 마음이 고맙고, 아이들에게 좋은 배움의 장이 될 듯싶어 쾌히 승낙했다. 광릉수목원, 유명산 휴양림 같은 곳으로 생태체험도 가고, 숲 해설사를 모시고 ‘우리 학교 식물지도 만들기’도 하며 식물들의 다양한 이면을 알게 되었다. 신비한 자연의 세계였다. 그 간의 배움을 정리해 나간 경기도 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서 은상을 받자 군에서는 처음 받는 상이라며 환호를 보냈고, 그 덕에 아이들도 나도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이들 못지않게 교사인 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 1년 동안 6학년 ‘과학과 사전실험연수’ 강사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관내 6학년 교사 중 제일 막내였던 터라 전문분야도 아닌 과학교육에 대해 선배님들께 연수한다는 게 영 부담스러웠지만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교육부 산하 여러 기관에서 나온 과학과 연수교재를 구하고, 전문 서적을 구입해 몇 달을 공부하였더니 실험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방법들을 얻을 수 있었다. 내친 김에도교육청 강사요원 직무연수도 이수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6학년 과학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생겨났다. 또 한 번 어깨가 으쓱해진 경험이었다. 다음 해에는 교육청

영재교육 지도교사를 하며 과학, 수학 분야의 다양한 교재와 자료들을 참고하여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로서 과학적 소양을 쌓아갔다.

그렇게 몇 년을 활동한 결과 ‘경기도 과학유공교사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10박 11일간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화된 과학관과 박물관, 우수학교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혔고 그랜드캐년의 웅장함, 모하비 사막, 끝도 없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밭과 밴쿠버의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소중하게 다루는 여유로운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우연히 받을 내딛게 된 과학교육,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자 도전했던 공부가 나의 교육 지평을 넓혀주었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였다. 덕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뚜벅뚜벅 내가 걸은 만큼 나의 영토가, 아이들의 배움터가 넓어진 것이다.

## 6 공개수업 포비아, 수업명인 되다!

부끄럽지만 나는 공개수업을 두려워했던 교사였다. 대학 졸업 후 6학급의 작은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신규니 매달 교장,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공개수업을 하라는 명(?)을 받았다. 나름 애써 준비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교장선생님께서 2시간씩 사후지도를 해주셨는데 내게는 지적을 받는 시간처럼 느껴져 너무 힘에 겨웠다. 그런 부정적 경험들이 쌓여 나를 ‘공개수업 포비아(공포증)’로 만들었다.

경력 17년 차에 큰 용기를 내어 ‘수업우수교사 인증제’라는 수업대회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뜻을 같이하는 동기 5명과 수업 모임을 만들었다. 6명이 연 5회씩 수업을 준비하니 매년 30개의 지도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었다. 차시목표에 맞는 수업 모형을 찾아, 전략을 짜고, 교과서를 재구성하며, 그 반이 지닌 수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시도해 보았다.

평소에 독서모임을 같이 했던 멤버들이라 진솔한 수업대화가 가능했다. 저마다 수업을 보는 안목과 전공 분야, 고민하는 지점과 해결책이 조금씩 달라 서로에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임이 지속되자 수업에 대한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교사로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함께 몰입할 거리를 찾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합의된 결과를 함께 실천해 나갈 때 교사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였다.

놀랍게도 처음 참가한 수업실기대회에서 1등급을 받으며 ‘공개수업 포비아’에서 조금씩 헤어날 수 있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이 즐거워졌고, 모임이 기다려지면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교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2년째, 3년째도 1등급을 받으면서 소속된 ○○교육청에서 유일한 ‘수업명인’ 교사가 되었다. 타이틀(?) 때문에 종종 수업 사례 나눔 자리에 초대되면, 지난 나의 경험을 전하며 오늘도 수업 때문에 웃고 울었을 동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는 모든 교사들이 평생 품고 가는 질문이다. 흔히들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수업을 고민하는 많은 교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각자도생은 안 됩니다. 동료들 믿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교실을, 그리고 수업을 열어보세요. 교사로서 일상을 나누는 용기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배움이 있는 뿌듯한 수업, 할 수 있습니다!”

## 7 최고의 학교? 교직원이 웃어주는 학교!

교사 시절, 친목회장을 무려 9번이나 했는데, 힘들긴 했지만 사람 좋아하는 내겐 딱 맞는 역할이었다. 서로 모래알처럼 지내던 학교문화도 친목회 운영 방향에 따라 끈끈해 지기도 하니 친목회장은 학교의 보석 같은 존재이다. 일단 학교는 모두에게 재미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공자, 맹자’보다 ‘웃자, 놀자’를 더 좋아한다.

학교가 교직원에게 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일터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다양하게 기획했고, 1박 2일 여행도 여러 번 추진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막상 학교를 떠나 대자연 앞에 서면 쉽게 무장해제 되었다. 서로를 알아가며 경험을 공유하자 친밀감이 생겼고, 그것이 유대감으로 이어져 조직문화는 물론 교육활동에도 윤택유가 되어주었다.

지금도 나는 시설 좋은 학교보다 웃어주는 교직원이 있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어른들이 미소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의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저절로 보고 배워 친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교직원 한 명 한 명의 표정과 학교의 분위기까지도 모두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인 것이다.

우리 학교도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구성원을 위한 멋진 공간을 함께 만든 후 서로의 일상과 생각,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길 희망해본다. 가르침이라는 학교 본연의 사명도 중하지만, 그 전에 즐거운 삶의 공간이 되어야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공모교장이 되면 상면 치어리더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곳, 그래서 출근길이 설레는 상면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어주는 학교, 그것이 결국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8

### 학부모 아카데미가 불러온 나비효과

막상 교감으로 승진하니 수업을 할 수 없어 종종 아쉬웠다. 대신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아져 학부모 공부 모임을 제안했고, ‘학부모 역사 아카데미’를 꾸려 운영하게 되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는 10년 넘게 역사공부 모임과 역사책을 뒤적이다 발견한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 답사하는 놀이에 푹 빠져있는 중이다. 그래서 학부모 아카데미도 첫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현장답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시의 자랑 오성 이항복, 한음 이덕형의 삶을 만나고, 그들을 모신 서원 3곳과 고장의 역사적 명소를 낱낱이 둘러보았다.

서울의 한양도성도 탐방했고, 조선시대 최고 명필인 추사 김정희의 삶과 작품도 살펴 보았다. 다산 정약용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 두물머리에 있는 다산 생가 ‘여유당’을 찾아 실학박물관도 관람하고 주변 경치도 즐기다 보니 학부모 아카데미의 소문이 퍼져 인근 학교 학부모님들도 참석하게 되었다.

아카데미를 통한 정기적인 만남은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고민, 학교에 대한 바람과 기대도 듣게 되고, 학교의 여러 상황과 교사들의 노고도 서로 알게 되었다. 모두가 아카데미 홍보대사가 되어 아이들의 학교를 ‘우리 학교’라 자랑하며 다닌다는 후문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학교는 아이들을 넘어 구성원 모두의 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공동체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배우며 즐겁게 소통하고 싶다.

## 9

### 도전과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어른들은 아이들이 꿈이 없음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한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무료하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학교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을 가슴 뛰게 할 무언가를 함께 찾아주는 것’이다. 남이 보라는 곳을 보는 사람이 아닌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사람, 자기 빛깔을 찾아 그 빛을 밝히기 위해 콘텐츠를 쌓으며, 삶의 근육을 키워 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진로교육은 직업교육과는 결이 다르다. 장래희망을 정해보는 건 너무 먼 얘기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수 있는 것과 1학기 정도는 투자해야 가능한 것, 1년 이상의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을 나눠 실천해보게 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점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일을 계획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결 수업을 자처하고, 교실을 서성여도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쉬 주어지지 않았고 난 늘 교실 속 아이들이 궁금했다. 그래서 교사 다모임에 참석해 교사들과 협의하여 학년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배정받아 진로교육을 지도했다.

진로 수업을 하면서 각자 도전과제를 정해보라고 했다. 도전과제가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재미난 오늘을 살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꾸려갈 것이다. ‘허송세월’이 아니라 꿈을 찾기 위해 ‘멋진 방향’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릴 적 꿈은 휘발성이 강해 쉽게 바뀐다. 나도 그랬다. 꿈이 자주 바뀌는 건 괜찮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공동체가 다 함께 해결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 10 즐겁게 배우는, 배움 천국(?)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미있다. 설렘을 주는 대상을 찾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역사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답사로 확인하는 일은 늘 설렌다. 그리고 설렘을 따라가는 일은 어떤 놀이보다 재미있어 오래 할 수 있다.

전입해 온 첫해, 학교 정원에 탐스러운 꽃이 피었다. 무슨 꽃일까 궁금하여 지나는 아이들에게 물으니 아무도 모른다. 너무 궁금해하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가르쳐주겠다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에 찾아와 ‘작약’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식물을 잘 아실 것 같은 사서 선생님께 먼저 여쭙 후, 식물도감에서 작약을 찾아 정원의 꽃과 비교해봤다며 자신만만해했다. 얼마나 대견하던지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었다. 이게 진짜 공부다.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새로움을 찾아가는 희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저절로 얇은 영토가 넓어지고 다른 영토와의 경계가 근접해져, 결국 서로 다른 영토를 자유롭게 오가며 더 큰 세상을 동경하게 된다. 미지에 대한 궁금함이 동경이 되고, 설렘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행복하다. 궁금하니 찾아보게 되고, 해결하려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궁금하지 않은 것을 배우게 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학교는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공부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원하는 바를 위해 스스로 배움을 계획하고 기꺼이 찾아 배우는 아이들로 길러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즐겁게 배울 권리가 있다. ‘김밥천국’ 수 만큼, 교육현장에 ‘배움천국’이 넘쳐나길 희망해 본다.

“애들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배움천국> 만들어줄게!”



## 11 작지만 가장 큰 학교, 분교

교사 경력 15년 차에 전교생 9명의 분교로 발령받아 5학년 2명, 6학년 1명 총 3명의 담임을 맡았다.

과학의 달 4월, 지금까지 분교는 교육청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분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설득해 고학년 5명 모두가 참가신청서를 내고,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과학상자, 과학상상화 중 한 가지를 고르게 했다.

방과 후에 남아 1개씩 만들거나 그리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특히 고무공력기와 글라이더는 비행의 원리와 방법까지 공부하자 점차 비행시간이 길어져 좁은 운동장에서 연습이 어려웠다. 그래서 차로 10분을 이동해 흥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확 트인 곳, ‘물미’에 가서 날렸다.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강 건너 큰 산, 산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과 구름, 그 사이를 나는 우리들의 비행기! 그 뒤로도 우리들의 꿈은 그 비행기와 함께 오래오래 날았다.

대회가 끝났다고 방과 후에 한가하지는 않았다. 운동장과 교실을 오가는 아이들의 1:1 수업이 늦게까지 진행되었고, 시설 주무관님께서 군시절에 이발사였다는 것을 듣고 ‘머리 깎아주기 사업’을 계획했다. 주무관님이 머리를 깎으면 나는 보조를 하다가 아이들 머리를 정성껏 감겨주었다. 말끔해진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뒤뜰 야영, 9명이 꾸민 학예발표회, 가족처럼 지내는 학부모들, 전교생을 초대해 삼겹살 파티를 했던 날의 모닥불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만났다. 온 힘을 다해 엉덩이에 불을 켜 반딧불이처럼 교육에 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학교, 분교는 내게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

▶ 돌이켜 보니 지난 29년간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으로 만나 교사로 행복했고, 교육가족을 힘껏 지원하며 교감으로 보람 있었다.

‘공모교장 도전’이라는 또 다른 출발선에서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리더는 어떤 존재이며, 서로 다른 이해와 욕구를 가진 공동체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묶어 낼 수 있을까?’를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상면 교육과정의 질적 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구성원의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시스템과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상면 교육의 지향점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공동체를 일궈 나가고 싶다.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공명할 것이다.

아이들의 배움터인 상면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인재를 품은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12 상면 교육 가족을 꿈꾸며..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인재를 품은 학교, 상면

Tea bag을 뜨거운 물에 넣어보기 전에 어떤 향기의 차가 들었는지 알 수 없듯

사람은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 어떤 향기를 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

숲속 난초향기, 가을 국화향기 좋다 하나 어떤 향기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향기입니다.

사람 향기 물씬 나는 사람다운 인재로 커가는 배움터  
제가 꿈꾸는 상면입니다.

저에게는 **야무친 꿈**이 있습니다.

☞ 상면의 아이들을

- 자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을 품고 **몰입하는 사람으로,**
- 강점을 찾아 즐겁게 배우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
-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깊게 생각한 바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라나게 돕겠습니다 ☞